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제265호 소식

2020. 7



제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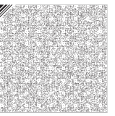


충청북도의회
www.council.chungbuk.kr

C O N T E N T S

- 발 행 일 2020년 7월
- 발 행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박문희
- 발 행 처 충청북도의회
- 편집위원 이상정, 허창원, 임동현, 지용익, 이종선, 이해수
- 주 소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4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buk.kr>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 제11대 후반기 의장 인사말
- 04 | 제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원구성
- 06 | 제382회 정례회 주요내용
- 08 | 제11대 전반기 의회 주요성과
- 10 | 코로나19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친환경 농식품 소비 촉진 동참
- 11 |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환영 성명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촉구 건의안
- 12 | 충북도의원 의정대상 수상
- 13 | 각 상임위원회 활동
- 20 | 주요처리의안
- 23 | 5분 자유발언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 31 | 청원·민원·방청안내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먼저 제게 11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1대 전반기 도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장선배 의장님과 부의장·상임위원장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간 충북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또한 전반기 의회가 이룩해 온 성과를 토대로 광역 의회 위상에 걸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입니다.

의회의 본질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돼야 합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자치입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중앙정치권, 전국 지방의회의장단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적을 떠나 소수정당과 협력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을 섬기며 지역현안에 앞장서는 의회’입니다.

의회 문을 활짝 열고 사회취약계층, 집행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이나 사회취약계층 등의 애로사항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 의원들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국비확보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또한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해 집행부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모든 이견과 갈등을 풀어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집행부와 상생하는 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하는 선진의회’입니다.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조례 제·개정을 통한 입법 기능입니다.
최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조례일제 정비결과를 보면 우리도 조례가 430여개로 파악됩니다.
타시도와 비교·분석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는 서둘러 제정하겠습니다.
11대 의회 대표적 성과 중 하나를 들자면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도약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이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해 애써 주신 결과 많은 연구결과물을 얻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열정과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의회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지만, 도민 삶을 보듬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충북도의회 의장 박 문 희





제11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원구성



의 장
박 문 희

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의회운영 위 원 회	 이상욱 의원	 윤남진 의원	 송미애 의원	 연종석 의원	 이상식 의원
정책복지 위 원 회	 박형용 의원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 (청주시 제1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의영 의원 (청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 위 원 회	 임영은 의원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옥규 의원 (비례대표) 미래통합당	 박상돈 의원 (청주시 제8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탁 의원 (단양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산업경제 위 원 회	 정상교 의원 (충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 (보은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윤남진 의원 (괴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건설환경 소방위원회	 김기창 의원 (음성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 (증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우양 의원 (영동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서동학 의원 (충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 육 위 원 회	 박성원 의원 (제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국기 의원 (영동군 제1선거구) 미래통합당	 김영주 의원 (청주시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육미선 의원	 이상정 의원	 김영주 의원	 박우양 의원	 박재완 의원
윤 리 특별위원회	 박우양 의원	 심기보 의원	 김영주 의원	 박상돈 의원	 박재완 의원



부의장
이 의 영



부의장
오 영 탁

위 원

충청북도의회전화번호



이숙애 의원



이옥규 의원



전원표 의원



최경천 의원



허창원 의원



장선배 의원
(청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의원
(청주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
(청주시 제5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청주시 제7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
(음성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
(청주시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
(제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심기보 의원
(충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완 의원
(진천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동현 의원
(청주시 제10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



이숙애 의원



임동현 의원



장선배 의원



전원표 의원



황규철 의원



연종석 의원



이상정 의원

의 장 실 신관6층(F.5009)	220-5000~02
부 의 장 실	220-5003~04
비 서 실	220-5005~08
더 불 어 민 주 당 대 표 의 원 실	220-8257~58
미 래 통 합 당 대 표 의 원 실	220-8255~56
의회운영위원회 신관5층(F.5019)	220-5010~15
정책복지위원회 신관7층(F.5029)	220-5020~24, 28
행정문화위원회 신관4층(F.5039)	220-5030~35
산업경제위원회 신관7층(F.5049)	220-5040~4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신관2층(F.5059)	220-5050~55
교 육 위 원 회 신관3층(F.5029)	220-5060~65 220-5196~97
의회사무처장실 신 관 6 층	220-5100
비 서 실	220-5102
총 무 담 당 관 신관6층(F.5119)	220-5110
총 무 팀	220-5111~17
홍 보 팀	220-5121~29
미 디 어 팀	220-6471~75
의 회 자 료 실 동 관 1 층	220-5187~88
의 회 기 자 실 신관3층(F.5299)	220-5296
의 사 담 당 관 신관6층(F.5159)	220-5150
의 사 팀	220-5151~55
기 록 팀	220-5161~70
본 회 의 장	220-5185
입법정책담당관 신관5층(F.5239)	220-5230
입 법 운 영 팀	220-5231~33
정 책 1 팀	220-5241~44
정 책 2 팀	220-5251~54



충북도의회는 지난 5월과 6월 제382회 정례회를 열어 충북도·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고 충북도 4회 추경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으며, 제11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382회 정례회 주요내용

충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개최

충북도·도교육청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 도 4회 추경안 등 처리

충북도의회가 6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제382회 정례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김영주 의원(청주6)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8건,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해 총 43건을 처리했다.

6월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0년도 충청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허창원 등 4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허창원 의원(청주4)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하자’를, 연종석 의원(증평)은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을, 윤남진 의원(괴산)은 ‘더 나은 목도고로의 개편 촉구’를, 박성원 의원(제천1)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장상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라며 “지난 2년간 164만 도민의 대의기구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민생관련 조례안 의원발의 건수는 163건으로, 제10대 의회 대비 37% 증가했으며, 도의회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정사상 최초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3개 특위를 구성·운영했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와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변해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며 “동료의원들의 노력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 의장은 이와 함께 “이번 회기 중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민생 조례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돼 있다”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 24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 4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2020년도 제4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4104억원(7.41%)이 증가한 5조8904억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됐다.

도의회는 또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도민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도의회 관련 안건은 △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충북도와 관련된 안건은 △충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충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등이다.

충북도교육청과 관련된 안건은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영은 의원(진천1)이 ‘학교시설 복합화로 생활 SOC 공급방식 전환하라!’ △이상식 의원(청주7)이 ‘코로나 이후 특별지원금 보안·관광 활성화 방안 필요’ △이옥규 의원(비례)이 ‘충북형 뉴딜사업 침소봉대 비판 새겨들어야’ △오영탁 의원(단양)이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전원표 의원(제천2)이 ‘문화예산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정책적 지원에 대한 건의’ 등의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6월 25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11대 후반기의회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며, 의장과 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의 정견발표 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11대 후반기 의장은 박문희 의원(청주3)이, 부의장은 이의영 의원(청주12)과 오영탁 의원(단양)이 각각 선출됐다.

박문희 의장 당선자는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의원들과 전반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준 장선배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항상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 도약

도민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 '앞장'



지난 2018년 7월 5일 개원한 충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의회가 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 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전반기 충북도의회가 쉽없이 달려온 2년간의 의정활동을 6월 말 마무리 했다.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일하는 도의회, 연구하는 도의회의 패러다임을 구축 했다는 호평도 얻었다.

전반기 도의회는 개원 이후 정례회 5회와 임시회 13회를 열어 총 4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안건 처리는 지난 10대 전반기 393건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또한 18회 264일간 회기를 통해 조례안 277건, 예산결산 34건, 동의·승인 87건, 건의·결의안 17건 등 463건 안건을 처리하는 등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에 힘썼다.

■ 도민 소통 강화 현장중심 의정활동

도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아래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119차례의 민생현장 방문과 28차례의 토론회·공청회, 120차례의 도민·사회단체·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생생한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충북실현 정책토론회 △지역농산물 이용 친환경학교급식 마련 토론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모색 토론회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활성화 토론회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 토론회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지역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해선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밖에도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 및 SNS 양방향 홍보,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 의회 청사개방 등 도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폈다.

■ 대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도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대집행부 견제기능도 강화했다.

도의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많은 논의를 거쳐 15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하는 방안에 합의했



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도의회는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도 산하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해 11월 충북테크노파크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오는 8월 청주의료원과 2022년 8월 충북연구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계획돼 있다.

도정감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는 송곳 질의를 통해 977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고 개선토록 촉구했다. 특히 도지사 중점사업인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액을 조정함에 따라 같은 당 소속 기관장 견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 활동 ‘활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했다.

전반기 도의회는 특히 조례 제정에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도의회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조례 △석면 안전관리 조례 △충북도교육청 교복지원조례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184건의 조례를 발의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이는 10대 의회 전반기 119건에 비해 54.6%나 증가한 수치다.

도의회는 특히 부분적인 내용 수정에 그치지 않고 필수불가결한 조례 101건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 또한 10대 의회 같은 기간 46건에 비해 2배 이상(119.6%) 증가한 수치다.

■ 지역현안 해결에도 진력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노력에도 힘썼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건의안, 충북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모두 8건의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 등에 발송함으로써 도민 입장을 대변했다.

특위활동도 활발히 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미세먼지 대책 특위 등 3개의 특위를 운영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

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에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충북 오창으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도의원 32명은 그동안 오창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대전과 충남, 세종 등 충청권 시·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해결에 앞장섰다.

■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 구현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 교육·문화·복지사업 발전방안 연구 △여성 NGO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북부권역 도로 재비산면지 발생원인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8건의 의정학술연구를 수행해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전반기 의회 2년 동안 10개의 자체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연구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활성화 연구 등 10개 과제를 생산해 의정에 반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 개혁과제 강도 높게 추진

의회 내부 개혁과제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제도와 관련해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출장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갖췄다.

올 1월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과 미디어팀을 신설, 내부조직을 개편해 의회 전문성을 높였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회 관련예산을 신속하게 심의 하는 등 국가위기관리에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마친 장선배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과 함께 노력해 준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는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방사광가속기’ 청주 유치 환영 성명

“예산확보·행정절차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

충북도의회가 5월 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 환영성명서를 내고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 등 구축 사업 추진에 적극 뒷받침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로 충북 오창을 선정한 것에 대해 560만 충청권 주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유치로 우리 충북은 국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산업의 동력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1조원이 투입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6조7000억원, 고용창출 13만 7000명 등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북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정치권

과 함께 예산확보와 제반 행정절차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8일 충북 청주시가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발표 평가에서 충북 청주시는 100점 만점에 90.54점, 전남 나주시가 87.33점, 강원 춘천시가 82.59점, 경북 포항시가 76.72점 순으로 후보지역이 결정됐다. 이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7일 상위 2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고, 1순위 지역인 청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3월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4월 27일에는 충청권 시·도의회회장단과 함께 충청권 유치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충북 오창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국민과 의료진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도의회 장선배 의장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 참여



장선배 의장은 이시중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5월 14일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시중 충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은 장선배 의장은 14일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이상식, 이숙애, 김영주,

이의영, 임동현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과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장선배 의장은 응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긴 싸움을 이어가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개인위생과 ‘생활속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은 다음 응원주자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코로나19극복 희망캠페인 릴레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시작돼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응원 메시지와 수어동작 등을 활용해 SNS에 응원 글을 게시하고 다음 응원자를 지목하는 형식이다.

충북도의회, 친환경농식품 소비 촉진 동참

7개 전국친환경농업단체로부터 친환경 간식상자 전달 받아



충북도의회는 5월 28일 전국 7개 친환경농업단체로부터 '친환경 간식상자'를 전달받고 친환경 농식품 소비에 동참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가 전국친환경농업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에 나섰다.

장선배 의장은 5월 28일 의장실에서 전국 7개 친환경농업단체로부터 과자와 전통차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간식

상자'를 전달받고 친환경 농식품 소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친환경농업단체는 건강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식품의 소비를 확대하고 친환경가공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에 친환경간식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2022 괴산 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붐 조성과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친환경농업단체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 구성돼있다.

장선배 의장은 이날 환담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농업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도의회에서도 친환경농식품의 소비 촉진과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도의회 건의문 채택... 청와대·국회·기재부·농림부 등에 전달

충북도의회는 24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충북도가 2013년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하고,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 개최해 108만명 이상 관람객을 유치한데다 유기농업연구소 설립, 유기농·무농약 환경보전비 지원 사업 전국 최초 시행 등 유기농 특화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충북 괴산에는 약 31만4000평의 규모로 유기농 생산·가공·판매·관광·치유 등이 연계된 유기농산업 클러스터인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중이며, 2022년 엑스포 개최시기와 연계해 40여개의 유기식품 관련 업체가 입주하고 1300여명의 일자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우양(영동2) 산업경제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연계한 유기농산업의 확산은 토양과 수질을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유기농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생활 습관병을 치유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국제행사 승인 촉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기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케이오거닉(K-organic)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국정기조와 연계한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침체된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유기농산업 위상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계부처로 전달할 계획이며 이는 7월 말 예정돼 있는 기재부의 국제행사 심의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의원 5명,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기창·박형용·송미애·임영은·서동학 의원 의정활동 빛나



충북도의회 김기창, 박형용, 송미애(왼쪽부터 3명), 임영은, 서동학(오른쪽 두번째부터 2명) 의원 등 5명이 5월 22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 개최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 김기창(음성2)·박형용(옥천1)·송미애(비례)·임영은(진천1)·서동학(충주2) 의원 등 5명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들 5명의 의원은 22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개최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상패를 받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기창 의원은 충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정확한 정책분석과 비판을 통해 집행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형용 의원은 충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민체감형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미애 의원은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등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일제강

점기 독립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내 독립운동의 체계적 실태조사와 보존활동 지원에 기여했다.

임영은 의원은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농촌 소득증대와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관광 및 산업분야까지 도정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서동학 의원은 충청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대집행부질문, 정책토론회 11회, 현장방문 17회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자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선배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하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등 11건 심사 의결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382 정례회 회기 중 두 차례 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억1505만원 전액을 수납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4억3590만원 중 107억5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억2992만원이 발생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에게 방향제시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질의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규칙도 심사 의결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해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같은 조례안 제정으로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했다.

다음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규칙 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음으로 기본 조례에 근거 규정을 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 규칙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기본 조례의 시행규칙 격인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도 운영부위원장인 육미선 위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끝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기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383회 충청북도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약자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방문하여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전시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82회 정례회 기간 중 9~10일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9 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9일에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개 부서(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등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원안 가결 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수혜자들이 사업효과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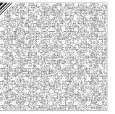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로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마무리 했다.

위원회는 또, 6월 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먼저 결산 심사에서는 성인지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전 부서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해줄 것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했다.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회부 조례안 등 심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82회 정례회 동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6월 9일 실시한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소관 부서의 사업집행 전반에 대해서 질의한 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예산 편성·집행 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행정국에서 감액한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역량강화 교육’ 등 11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규 및 증액한 ‘괴산 수목정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고,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 도민 모두가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승인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 1개 사업 2억3932만1000원을 감액했다.

위원회는 같은 날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충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으며,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안 촉구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82회 정례회 동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9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우리도와 교류중인 외국 자치단체가 재난·재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촌체험마을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이어 6월 10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열어 경제통상국,

농정국, 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했다. 의원들은 부서별로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들과 집행과정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기업이 많은 만큼 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6월 16일에는 충북도 농민수당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7개 단체 대표들과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도-농민-의회 간의 의견과 국회 및 중앙부처, 타 지자체의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추진 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24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열어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기농 특화도 충북」을 알리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더불어 코로나19와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유기농산업의 위상제고를 위해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촉구했다.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박재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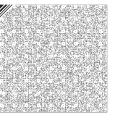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9일과 10일에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대책 마련 촉구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국기 의원



김기창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0일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충청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회 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6월 9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재난안전 실 등 4개 실·국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회는 “충북형 뉴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만 커졌을 뿐, 기존에 시행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올 예정으로 폭염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노인층,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안」 및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음 날인 6월 10일에는 2차 위원회를 개최해 「2019회 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 승인했다.

위원회는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호우재해 복구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6월 19일에는 3차 위원회를 개최,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도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및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관련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활발

위원장
이숙애 의원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임동현 의원



황규철 의원



교육위원회는 6월 10~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82회 정례회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10일 실시한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에서는 음성군 소재의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된 부분을 확인·점검하고, 충북 최초 공립 대안학교인 진천군 소재 은여울중학교를 방문해 대안학교 운영과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실시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 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생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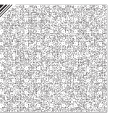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 및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 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고,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

장 조례안」은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응급장비 설치·관리에 대한 사항 및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 등을 위해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6월 11일에 실시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자리에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 등을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불용률 관리 및 무분별한 사고 이월을 막기 위한 충분한 사업 검토기간 확보 등을 주문했다. 특히, 성인지 예·결산 대상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측정산식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위원회

제382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심사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 활성화 등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6월 9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기 중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미세먼지 대책 특위 등 각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위는 6월 9일 제6차 회의를 열어 KTX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KTX세종역·ITX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따른 충북의 대응상황 및 향후 전략 등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핵심인 오송연결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KTX세종역·ITX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철흠 특위 위원장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사업 선정,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나아가 강호축 개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위도 6월 9일 같은 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포스트코로나 대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등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 건을 의결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선 셧다운과 국내선 운항 감축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항공·관광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압초를 만나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특위도 제382회 정례회기 중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의영 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382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관하여 도모함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정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2020.4.7.공포, 2020.5.27.시행)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고자 함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상돈 의원)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 명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를 명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근거조례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 규정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18. 2. 9.시행)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 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 사항 명확화, 소개의원 취지설명 요구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감 소관 사항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심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규정방식 및 용어, 문구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함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최경천 의원)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 2. 9.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 소화 등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대표발의 : 박성원 의원)

[제안이유]

-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의 범위 확대 및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성원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 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제안이유]

- 우리도와 교류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태풍·해일·폭우·화재·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서동학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촉구’ 건의안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지구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유기농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기농 가치 확산 및 침체된 농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의 유기농산업 위상제고를 위해 반드시 국제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와 학생·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함양과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제안이유]

-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발의 : 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선 셧다운과 국내선 운항 감축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및 관광객이 급감하고 청주국제공항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발의 : 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정학적 위치, 기상상황, 배출오염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함에 따라 단기성과 달성에 만족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의 : 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지원과 KTX오송역 활성화 및 KTX세종역 설치 저지 등 지속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제안이유]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는 천연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여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근거 법조항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42조의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제42조 개정(시행 2020. 6. 11.)에 따라 입법 예고 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예외 등 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 및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고자 함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9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난·재해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발생 역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재난·재해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명시하고자 함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수산조 대전제교 외 1건의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 제안



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난 4월에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조건으로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 계획을 세워 대상 학교 선정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은 점차 학생수가 줄면서 기존의 학교 시설 내에 유휴공간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교육현장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학교마다 배치됨으로써 기존의 공간 활용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기

존의 생각을 바꿔, 지역주민과 학교시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역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같이 고민하는 등 교육의 장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수곡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많을 때에 비해 3분의1 정도의 학생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수가 많을 때에 별관을 지어 강당으로 대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의 숙원 사업이던 다목적강당이 신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곡 2동은 인구 밀집도가 청주에서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부지 내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관 건물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지역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촉구



연종석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에 더욱 절실합니다.

2020년 현재 증평군에는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및 중학생 총 335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괴산군 원아와 학생수는 1727명으로 1628명이 많아 재학생 수가 무려 두 배의 차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평군은 2003년 8월 30일 자치단체 출범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교육지원청이 없는 교육자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물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설득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에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폐지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증평군에서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아 교육지원청 신설의 기회를 놓친 바 있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교육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더 나은 목도고로의 개편 촉구



윤 남 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농촌지역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과 쇠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회적 정책입니다.

목도고의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청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 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협치가 필요하기에 충청도교육청의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통해 더 나은 목도고 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목도고 폐교를 결정하고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않는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환학

교는 1년 교육과정으로, 오디세이학교 등 국내 전환학교가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공 사례가 없으며 전환학교 추진은 지역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전환학교의 대안으로 괴산군민들이 요구하는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환학교 외에 지역에서 제안한 특성화고나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건의사항들에 일절의 재고 없이 전환학교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도고가 역사의 뒀안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교육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의 활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박 성 원 의원
(교육위원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완전히 외면 받았습니다.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령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 명문화 등입니다.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재원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난제들을 중앙정부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중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도록 주문해야 하며 주민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이를 계기로 충북 각 시군의회의를 비롯해 전국으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추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로 생활 SOC 공급방식 전환 촉구



임영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복합화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는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선용이라는 장점을 주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올 3월에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9일은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가 출범한 날입니다. ‘국토의 중심! 대한민국의 미래! 충북혁신도시가 앞장 서겠다’고 공약하고 홍보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생활 혁신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진천군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특별지원금 보완·관광 활성화 방안 필요



이상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맞고 극복해 보고자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는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시기적절한 대응이었지만 개인용달화물사업자와 개인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유가보 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책 검토와 함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원계층이 더 있다면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운영

시설 등의 한시적 입장료 면제 및 할인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의 휴지기를 속단할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잘 관리된다면 여행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해외보다는 내수여행을, 여행형태는 지역문화예술 및 전시시설 관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Safety) 이슈 부각에 따른 생활관광 중심의 트렌드 변화로 집 근교에서 가족과 함께 야외활동을 즐기는 생활관광 선호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서울·경기권의 근거리인 충북이 지리적 강점과 여행객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활성화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함께 얼마나 효과를 거두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책적 검토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5분 자유발언 |

충북형 뉴딜사업... ‘침소봉대’ 비판 새겨들어야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호응하여 전국 자치단체들도 지역형 뉴딜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기조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반면 충북도는 기존에 진행 중인 시·군 사업을 모아 이름만 충북형 뉴딜이라고 하여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아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미래지향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형 뉴딜사업이 포함된 이번 4회 추경안을 충북도에서 요청한 대부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안도 아닌 졸속으로 만들어진 충북형 뉴딜사업에 도의회가 맞장구를 친 꼴로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충북도의회는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11대 의회를 구성할 때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사님에게 △충북형 뉴딜사업의 전면 재검토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뉴딜사업 마련 등 두 가지 정책제언을 합니다. 코로나 피해 도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정책과 별개로 진행하면 재원도 부족하고 효과도 미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충북형 뉴딜에 대한 ‘침소봉대(針小棒大)’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필요)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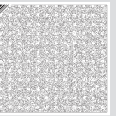
오 영 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1980년대 1082만7000명에서 2019년 224만4783명으로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농업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은 인구절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68로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 0.84보다 낮은 수치이며,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의료·교육·복지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미래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형 자립 농촌을 만들고 지역개발과 6차 산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농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경상남도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와 쇠퇴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유토피아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농촌유토피아 사업’처럼 어느 한곳의 노력만이 아닌 민·관·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역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이 자생하는 건강한 농촌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도교육청, 공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육, 주거, 문화, 일자리 확충 등을 종합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산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정책적 지원에 대한 건의



전 원 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의 2020년 문화예술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1.75%에 불과하며, 이는 접경지역인 충청남도의 2.32%, 전라북도의 2.49%에 비해 많이 적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문화예술분야입니다. '2020 공연예술 통합예술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공연예술업계 매출액은 약 400억원이었으나 4월말 36억원으로 열배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문화 관련시설들이 일제히 휴관하고,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폐업과 실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술창작활동이 멈춘 것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취소로 반려되는 예산을 다시 문화예술 관련부문에 할애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나 각종 단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북도에서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의 문화정책을 문화복지정책으로 방향전환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 복지 정책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문화적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사님에게 △문화예술 관련 예산 2% 달성 공약 실현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예산 편성·지원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등 3가지 정책제언을 하며, 충북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심동덕

同心同德

코로나19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12일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8일 상임위 위원실에서 회부안건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집행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6월 9일 음성군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변경된 부분을 점검하고, 진천군 은어울중학교를 방문해 대안학교 운영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8일 건설환경소방 위원실에서 균형건설국 소관 간담회를 실시해 현안업무 보고를 받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도의회회의실에서 '충북 농민수당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는 6월 9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오송연결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장선배 의장은 5월 26일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5월 29일 장선배 의장과 임영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진천군 백곡면 일대에서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위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장선배 의장은 6월 19일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미래산업 구조변화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자!

이 수 완 의원
(교육위원회)

최근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 세분화 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월 교육부는 고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인 인공지능 관련 분야 교육기회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34개 일반고를 ‘인공지능(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로 특별지원,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기반 과목인 ‘정보(S/W),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수리·통계’등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적성을 살려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정보교육시스템의 내용 체계는 대체로 4차 산업혁명의 정신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초·중·고등학교 과학과 수학 교육시스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IoT(사물인터넷) 활용 과학 수업, 플랫폼 구

축 설계 및 시범운영 연구라든지 알지오매스(수학 실험 탐구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사회적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4학년)에서 기본적인 ICT활용교육과 더불어 AI에 대한 기초적인 활용능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활용을 통한 로봇, 피지컬컴퓨팅, AI 등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

특히 시도에서 운영 중인 SW교육지원체험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정보교과 내에서도 현 교과서에는 AI 내용이 없지만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일정시간 AI체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시행하여 중·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과학, 수학, 정보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을 가르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 교사 확보와 수급을 원활히 하는 방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ICT 교육은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중심의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미래인재육성모델’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민원·방청안내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회의전까지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TBre01LcVSzI_MVsD8R5EA
- 트위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